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yle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김 영 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 도 교 수 박 혜 원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김 영 아

김영아의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영 주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심사위원 박 혜 원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년 2월

국문초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 영 아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울산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이 미치는 영향 검증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33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8.0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통제적 양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통제적 양육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자녀가 높은 집단의 자녀에 비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통제적 양육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정서발달 전체는 온정적 양육에 의해 14%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온정적 양육에 의해 16%의 변량이 설명되었고, 관계참여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의해 12%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은 온정적 양육에 의해 23%의 변량이 설명되었고, 의사소통은 온정적 양육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의해 총 15%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의해 7%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어머니가 직접 질문지를 통하여 평정하였으므로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척도로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 척도를 사용하여 연령별 기준 단계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회정서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어린이집 교사 등과 같이 보다 객관적 평정이 가능한 집단을 통해 수집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사회정서발달, K-BSID-III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용어 정의	3
1) 양육스트레스	3
2) 양육유형	3
3) 사회정서발달	4
II. 이론적 배경	4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4
1) 양육스트레스의 이해	4
2)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5
2. 어머니의 양육유형	6
1) 양육유형의 이해	6
2) 양육유형과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8
3.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9
1) 사회정서발달의 이해	10
2)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13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측정도구	17
1)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척도	17
2)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척도	18
3)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18
3. 연구절차	20
1) 예비조사	20
2) 본 조사	20
4. 자료분석	21

IV. 연구결과	22
1.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22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기술통계	22
2)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23
3)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27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	32
3.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의 영향력	33
V. 논의 및 결론	36
참고문헌	41
Abstract	48
부록1	51
부록2	53
부록3	56

표 목차

<표 1> 사회 정서적 기능의 단계(Greenspan, 1979)	10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6
<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17
<표 4> 어머니의 양육유형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18
<표 5> 기능적 정서 기준에 따른 월령 범위와 해당 문항	19
<표 6>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요인과 구성요소	19
<표 7>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20
<표 8>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22
<표 9>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23
<표 10>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평정 차이검증	25
<표 11>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27
<표 12>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평정 차이검증	30
<표 13> 전체 변인들 간 상관	32
<표 14>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의 영향	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에는 스트레스가 따른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가족구조 역시 핵가족화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체계가 축소되고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협력으로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부모의 부담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들 수 있다(김기현, 2000;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Belsky, 1984; Cutrona & Troutman, 1986).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양육스트레스는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누적된다는 점에서 특정 사건이나 주요한 생활 사건보다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Abidin, 1990).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양육유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유형을 보이게 된다고 했다(Abidin, 1990; 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칭찬과 격려, 적극적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줄고, 거부,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말경, 박혜원, 2008; 박영진,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유형을 나타낸다고 했다(신숙재, 1997).

이처럼 양육스트레스가 선행되어져 나타나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환경체계로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정영선, 2004).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양육유형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하고 합리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낸다(Cohn, 1990; Bate, Maslin & Frankel, 1988; Putallaz, 1987). 또한,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때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Brody & Shaffer, 1982). 반면, 강압적이고 거부적이거나 과도하게 허용적인 양육유형을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ieberman, 1977).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혜원, 2007). 또한, 생후 3년 이내에 영아가 경험하는 적절한 교육과 자극들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한편, 기질적 특성, 영아에 대한 무관심,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저해한다(최석란, 2007). 이러한 영아기 사회정서발달은 영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영아기 사회정서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안라

리, 2005).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의 현재 사회정서발달 수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아동이 건강한 정서적 기능을 토대로 전반적인 발달기능을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일개념에 초점을 둔 기존 검사보다 더 유용하다(Bayley, 2006; 김혜원, 2007).

그러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을 함께 다룬 연구 또한 부족하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사회정서발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미치는 영향 검증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측정을 K-BSID-III와 함께 실시되는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영유아의 사회정서기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정의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에 따라 수행하는 부모 역할에서 겪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고통, 자녀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다 (김기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Abidin(1990)의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기초로 하여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 32문항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척도로 측정된 스트레스로 정의한다.

2) 양육유형

양육유형이란, 가정 내에서 자녀의 특성, 태도,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태도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나타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 행동으로 정의한다(최유경, 1998).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을 Baumrind(1973)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개발한 양육유형 척도(PSQ)를 사용해 측정했다.

3) 사회정서발달

사회정서발달은 영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과 감정 표현법을 터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한다(노경아, 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로 측정된 행동특성을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의 이해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출생에 따라 어머니가 부모 역할에서 겪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고통, 자녀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정의한다(김기현, 2000). 고성혜(1994)는 인생 주기를 통해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족 체계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의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들 수 있으며(김기현, 2000;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Belsky, 1984; Cutrona & Troutman, 1986) 특히 Abidin(1992)은 자녀의 성격적 특성, 부모의 특성,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스트레스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은 수용성, 활동성, 적응성, 부모 강화 등을 의미하며 부모의 특성은 부모의 성격,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스트레스는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관련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강희경(1998), 박해미(199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본 반면, 김정(2005)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는 여아를 둔 어머니가 남아를 둔 어머니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 반면, 남혜순(2003),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는 남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고성혜(1994), 김기현(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연구결과들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부모 관련 요인으로 이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김미희(2000)와 조영희(2008)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으나, 남유리(1989), 유희정(2002)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자신감을 보인다고 했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 연구결과도

있다(고성혜, 1994; 이영숙, 2000).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전병순(2008)은 월 수입이 적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반면, 윤선영(2016)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연구들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Abidin(1990)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기질 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부모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녀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유형이 나타난다.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와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지영, 2015).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칭찬과 격려, 적극적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줄고, 거부,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말경, 박혜원, 2008; 박영진,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했으며(신숙재, 1997), 강압적인 양육유형을 보인다고 밝혔다(김명희, 1998; 신숙재, 1997).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았다(우희정, 최정미, 2002).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고 이는 다시 자녀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 시킨다고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공격성, 과잉행동, 부적응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이정희, 2000).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받은 양육유형은 아동의 발달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중 사회정서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성은 유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동안 그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타인과의 상호 접촉을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이승은, 2012).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발달 중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해보면, 유우영(1998)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김현미(2004)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인기도, 지도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으며, 문혜련(1999)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아동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박진성(2012)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이정희(2000)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 과잉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머니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놀이보다 또래들과의 놀이를 좋아하며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문혜련, 1999). 한편,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은 어린이집 적응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래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어린이집 등원 시 불안해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고 했다(이정희, 2000).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는 유능감, 사회적 능력, 적응력이 낮아서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이자현, 위영희, 2012).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부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승은(2012)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밝힌 연구 실정이 미비하므로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진행될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정서발달 연구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Abidin(1990)의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기초로 하여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척도’ 32문항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척도 부분만 발췌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어머니의 양육유형

1) 양육유형의 이해

양육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 양

식이다(이숙, 1991). 이원영(1983)은 부모 혹은 대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자녀의 정서, 심리 등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육성환, 2019). 김린(2006)은 양육행동을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으며,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이 가장 많고, 또한 자녀의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체계로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중 양육행동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학자는 Symonds(1949)이다. 그는 양육행동을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2차원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과보호적, 거부적, 지배적, 복종적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73)는 양육행동을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권위적 유형, 온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권위주의적 유형, 온정은 높고 통제가 낮은 허용적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위적 유형의 부모는 지배적이기보다는 자녀들의 관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한다. 권위주의적 유형의 부모는 많은 규칙을 세우고 자녀들의 엄격한 복종을 기대하며 자주 처벌적이고 강압적 책략에 의존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 허용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허용적이지만 모호한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를 바탕으로 PARI(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통해 종단적 연구를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거부, 자율-통제라는 모형으로 제시했다. 이 모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애정은 자녀에 대한 호의, 평등주의적 태도, 긍정적 평가를 뜻하고 거부는 엄격함, 무시 등을 포함한다. 자율은 허용을, 통제는 감정적 개입, 불안, 성취요구 등을 의미한다(이원영, 1983, 재인용). Maccoby & Martin(1983)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양육행동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박주희(2001)는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으로 분류하였다. 박주희(2001)의 분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정·격려는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자율성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 등과 같은 행동을 말하고, 한계설정은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과보호·허용은 자녀의 요구사항에 무조건 따르거나 적절한 통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거부·방임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양육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유형에 대해 박성혜(2002)는 아동이 어릴수록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변수연(2010)은 만5세 이상인 어머니가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더 통제적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연령에 따른 양육유형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춘희, 2002; 류효정, 2015). 아동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부모는 좀 더 자율적인 양육유형을 나타냈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좀 더 통제적인 양육유형을 보였다(배문주, 2005, 재인용). 또한, Maccoby(1980)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반면, 부모의 양육유형이 아동의 성과 상관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은영, 1997; 김은정, 2001; 박인숙, 1997).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혜정, 2016).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더 통제적이라는 연구(이영자, 2007)도 있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이 양육유형과 상관없다는 연구(이영숙, 2001)도 있다. 가구 소득과 양육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옥(1993)은 가구 소득이 높을 때 덜 통제적인 양육유형을 보인다고 했으며, 노인순(2012)은 소득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다. 한편, 최희준(2005)의 연구에서는 소득 전체와 양육유형 사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거부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양육행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화 및 범주화한 것을 양육유형이라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유형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비슷한 개념들로 분류되어지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유형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류되어진 다양한 양육유형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umrind(1973)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PSQ 양육유형 척도를 사용해 양육유형의 근간이 되는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으로 구분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육유형과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정영선, 2004). 또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사회화에 작용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단순한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복잡성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재은, 1974).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발달은 엄마 품에서 시작된다. 주 양육자인 엄마를 시작으로 다른 식구들도 좋아하게 되고 손님들과도 사귀게 된다. 이렇게 하여 타인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며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형성된다(행동과학연구소, 1996). 이처럼 생의 초기에 부모 역할은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

녀가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사회·정서적 풍토를 창출하는 부모 태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Baumrind, 1973; 김민희, 2010, 재인용).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과 관련해 Hartup(1983)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밝혔다. 첫째,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둘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는 아동이 사회적 혹은 비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한다. 셋째, 어머니는 아동이 앞으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시초로서 기능한다. Hartup(1983)이 밝힌 세 가지 기능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존재 및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가장 기초는 Baumrind(1973)의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유형을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온정적이며 자녀에게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는 권위적 양육유형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성인이나 또래와 협동을 잘하는 등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온정적이지 않으며 자녀를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양육유형의 자녀는 쉽게 화를 내고 적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강한 허용적 양육유형의 자녀는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부족하며 독립성도 낮게 나타났다. Hurlock(1978)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모의 자녀들은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사회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다. Becker(1964)와 Kagan(1965)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는 능동적, 독립적, 외향적이며 사회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유형을 나타낼수록 자녀는 유치원에서 친사회적이고 또래 간 인기가 높게 나타났으며(원영미, 1990), 이경희(197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권옥자(1987)는 어머니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모순적 경향을 보일수록 자녀는 비활동적이며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유현숙, 고선옥(2009)은 어머니가 거부적이거나 방임하는 양육유형일수록 자녀는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다고 했으며, 서동미(1996)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양육유형을 보일수록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및 또래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했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유형을 나타내는가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1) 사회정서발달의 이해

사회정서발달은 영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과 감정 표현법을 터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한다(노경아, 2016). 또한,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 할 줄 알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박미란, 2017).

이와같이 정의되는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두 행동을 묶은 개념으로, 사회적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Ford, 1982). Anderson과 Messick(1974)은 사회적 능력을 개인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규칙과 관습, 습관 등에 동조하려는 정도로 정의했다. 우수경(2007)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지식과 태도, 기술을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정서적 능력이란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정서적 표현, 조절, 이해 능력이며 사회성 발달의 기초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특성이다(이선영, 2006).

이와 같이 사회정서발달은 각각으로 정의되는 개념들이 묶이긴 했지만 영유아는 사회성과 정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기보다 통합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지선, 2009). 사회성과 정서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달은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사회성과 정서 간의 역동적인 과정은(Klennert, Campos, Sorce, Emde & Svejda, 1983) 기능주의적 정서 이론을 이끌어내었고, 이는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제3판 사회-정서 척도의 기능적 정서발달 접근과 일맥상통한다(김혜원, 2007).

Bayley-III 사회-정서척도 원저자인 Greenspan(1979)은 출생 후 42개월까지의 사회 정서적 기능을 총 6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표 1> 사회 정서적 기능의 단계(Greenspan, 1979)

구분	특성
1단계	<p>· 자기 조절 행동의 발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출생~3개월까지)</p> <p>출생부터 3개월까지 영아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 동안 영유아의 감각, 정서적 반응은 조직화되고 조절되기 시작한다. 영유아는 환경 자극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포함해 감각, 그리고 타인의 접근과 접촉에 반응하며 타인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영유아는 일상의 소리에 관심을 보이게 되며, 과민한 정서나 감각 자극 없이도 양육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빠르게 안아 올려지는 것을 즐긴다.</p>

2단계	<p>· 관계에 참여(5개월까지)</p> <p>이 단계의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학습하며, 미소 짓기, 웅얼이, 눈빛, 침으로 공기방울 만들기, 그리고 즐겁게 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만족스런 신체적 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양육자와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영유아는 웅얼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고, 놀이에 반응하며 호기심 어린 표정이나 성가신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p>
3단계	<p>· 상호적이며 의도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사용(9개월까지)</p> <p>9개월까지 성장하며 영유아는 상호적이고 자주 의도적인 의미로 감정을 사용한다. 영유아는 양육자에게 정서적 표현과 몸짓을 사용한다(예: 양육자를 향해 손을 뻗기, 기어가기, 걸음마하여 가기, 둘 이상의 표현 주고받기). 이 단계의 일반적 행동들은 미소 짓기, 안아달라고 손 뻗기, 혹은 장난감을 가리키며 특정한 소리 내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적 의사소통은 4a~4b 단계까지 지속된다.</p>
4a단계	<p>· 의사소통하기 위해 일련의 상호적인 정서 신호나 몸짓을 사용(14개월까지)</p> <p>이 단계의 영유아와 걸음마기 아동들은 상호작용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속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조직화하며, 정서적 신호와 몸짓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 단계 동안 어린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행동에 반응하며 온화함, 기쁨, 탐색을 보인다. 또한 욕구나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고받는 형식의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영유아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양육자의 재밌는 표정 따라 하기, 양육자가 고개를 흔들면 행동 멈추기, 그리고 양육자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 등이다.</p>
4b단계	<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상호적인 정서 신호나 몸짓을 사용(18개월까지)</p> <p>18개월까지 아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적인 정서 신호나 몸짓을 사용한다. 이 단계의 끝으로 가면서 걸음마기 아동들은 감정 신호(예: 얼굴 표정, 제스처 등의 몸짓, 단어)를 계속하여 교환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상호작용을 한다. 이 단계를 숙달한 아이들은 관심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양육자와 노는 동안 소리를 따라하거나 모방한다. 이 단계의 아동이 보이는 또 다른 행동으로는 양육자를 문으로 이끄는 것,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양육자로 하여금 원하는 장난감을 함께 찾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p>

5a단계	<p>· 의도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상징이나 생각을 사용(24개월까지)</p> <p>이 단계는 의도 또는 느낌,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상징이나 생각을 사용하는 아동의 능력으로 특정지어 질 수 있다.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기술 발달이 이를 촉진할 수 있다. 혼자서 혹은 타인과 함께하는 가상 놀이 양식의 출현은 5a단계의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 아동은 이제 단순한 질문을 이해하며, 의도 또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나 다른 상징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 이 단계의 전형적인 행동은 인형에게 밥 먹여주기 혹은 안아주기, 원하는 것을 한 단어로 전달하기(예: “안아줘” 또는 “먹어”), 그리고 간단한 언어 지시에 반응하는 것 등이 있다.</p>
5b단계	<p>· 기본적인 욕구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이나 생각을 사용(30개월까지)</p> <p>이 단계는 간단한 의도 또는 감정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아동의 상징 또는 생각의 사용으로 특징 지어진다. 아동은 이제 의도나 감정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을 전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정서적 주제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동의 능력은 그들이 감정과 사고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아동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만화 혹은 영화의 주인공인 척 하는 것,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알릴 때 “저거 줘” 또는 “싫어” 라고 말하는 것, 또래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p>
6단계	<p>· 정서와 생각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창조(42개월까지)</p> <p>6단계에서 아동은 가상 놀이와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의도들과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정교하게 연결 짓고, 자신과 타인에 의해 표현된 감정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은 이제 상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전형적인 행동은 한 명 이상의 또래들과 가상놀이를 하는 것인데, 이 때 놀이는 이야기 줄거리가 이해가 되며,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예: 학교 놀이는 집을 떠나고, 버스에 타고, 과제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 또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예: “왜 방에 들어가고 싶어?”, “장난감을 가지러요.”)과 성인과 여러 번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p>

위 단계에 근거한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는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체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여 발달 시기에 따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김지혜, 방희정, 이순행, 김현미, 남민, 2014). 이 척도는 0~42개월을 대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 하는데 있어 이들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기존의 단일개념에 초점을 둔 검사보다 더 유용하다(Bayley, 2006).

2)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미래의 행동들 즉, 또래놀이에서의 감정표현, 적응, 애착관계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이선영, 2006). 따라서 영아기에 습득하는 사회정서행동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성숙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행동양식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다(이정순, 2002). 즉, 사회정서발달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고 영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과 감정 표현을 터득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배정인, 2015).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의 개인적 특성을 변인으로 한 연구(이혜림, 2015), 양육자 특성을 변인으로 한 연구(강수진, 2009; 권성례, 2017) 양육자의 양육행동,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신념 등을 변인으로 한 연구(박미라, 2017; 유미, 2021; 한은지, 2020), 프로그램을 변인으로 한 연구(김선영, 2018; 서수미, 2017; 임영희, 2002)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중 특히,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변인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혜림(2015)은 영아의 월령과 성,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는 사회정서발달 중 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가, 영아의 성에 따라서는 사회정서발달 중 자기조절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중 자아개념과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가구 소득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한은지(2020)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박어진(2012)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성이 높다고 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대부분 김호인(2010)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본정서 및 사회정서발달, 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를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으며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를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이 척도는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논리적 연결,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의 6개 하위요인을 두고 있으며, 0~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하여 살펴 본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세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부모의 고통과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적극적 참여, 규제, 합리적 지도 등의 양육행동 요인들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관계를, 적극적 참여, 규제, 합리적 지도 등의 양육행동 요인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경선(2012)은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느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행동은 정서지능을 비롯한 그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타인의 정서 인식 및 배려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들 중 온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적극적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했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여아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반응성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하위 영역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보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정원(2015)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 관계를 연구했는데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또래집단에서 유능해질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세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각 연구에서 설정된 종속변수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정서발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사회정서발달이라는 종속변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200명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여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배부된 질문지는 총 200부였으며, 이 중 15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133부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	남	58	43.6	
	여	75	56.4	
자녀	월령	4~5개월	2	1.5
		6~9개월	2	1.5
		10~14개월	3	2.3
		15~18개월	7	5.3
		19~24개월	16	12.0
		25~30개월	21	15.8
		31~42개월	82	61.6
연령	20대	7	5.3	
	30대	116	87.2	
	40대	9	6.8	
	50대 이상	1	0.7	
학력	고졸이하	7	5.3	
	2,3년제 대학 졸	37	27.8	
	4년제 대학 졸	82	61.6	
어머니	직업	대학원 졸	7	5.3
		전문, 관리직	36	27.1
		공무원	3	2.3
		사무직	25	18.8
		판매 및 서비스직	8	6.0
		주부	50	37.6
		기타	11	8.2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	2.3	
	200만원~300만원	17	12.8	
	300만원~400만원	30	22.6	
	400만원~500만원	34	25.6	
	500만원 이상	49	36.7	
합계		133(100)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58명(43.6%), 여아가 75명(56.4%)이었으며, 월령은 4~18개월이 14명(10.6%), 19~42개월이 119명(89.4%)이다.

연구대상의 어머니 연령은 20대가 7명(5.3%), 30대가 116명(87.2%), 40대가 9명(6.8%), 50대 이상이 1명(0.7%)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7명(5.3%), 2,3년제 대학졸이 37명(27.8%), 4년제 대학졸이 82명(61.6%), 대학원졸이 7명(5.3%)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 관리직이 36명(27.1%), 공무원이 3명(2.3%), 사무직이 25명(18.8%), 판매 및 서비스직이 8명(6.0%), 주부가 50명(37.6%), 기타 11명(8.2%)이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3명(2.3%), 200만원~300만원이 17명(12.8%), 300만원~400만원이 30명(22.6%), 400만원~500만원이 34명(25.6%), 500만원 이상이 49명(36.7%)이었다.

2. 측정도구

1)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22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Abidin(1990)의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기초로 하여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척도’ 32문항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척도 부분만 발췌했다.

총 2개 영역의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했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9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90, 전체 신뢰도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12	12	.9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3~22	10	.90
전체	1~22	22	.95

2)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umrind(1973)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이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했다.

양육유형은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으로 총 2개 영역의 33문항으로 구성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했으며, 부정적 의미의 질문인 17, 18, 19, 32번 문항은 역채점으로 측정했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온정적 양육이 .74, 통제적 양육이 .63, 전체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유형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온정적 양육	1~20	20	.74
통제적 양육	21~33	13	.63
전체	1~33	33	.68

3)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이용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정도를 측정했다.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는 0~42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연령별 중단점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요인은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논리적 연결’,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의 총 6가지로 나뉘어져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때때로 그렇다’는 2점, ‘반 정도 그렇다’는 3점, ‘대부분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했다.

<표 5> 기능적 정서 기준에 따른 월령 범위와 해당 문항

단계	기능적 정서 기준	월령 범위	해당 문항
1단계	자기 조절 능력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0-3	1-11
2단계	관계에 참여함	4-5	1-13
3단계	목적을 가진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사용함	6-9	1-15
4a단계	의사소통하기 위해 상호적인 정서적 신호나 제스처를 사용함	10-14	1-17
4b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적인 정서적 신호나 제스처를 사용함	15-18	1-21
5a단계	의도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 또는 생각을 사용함	19-24	1-24
5b단계	기본적인 욕구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 또는 생각을 사용함	25-30	1-28
6단계	정서와 사고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만들	31-42	1-35

<표 6>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요인과 구성요소

사회-정서척도 요인	사회-정서척도 구성요소
감각 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다양한 감각자극(시각, 청각, 촉각, 전정감각)에 대한 반응 및 주의
논리적 연결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능력 의도와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 주고받기
관계참여	이야기가 있는 가상놀이를 하는 능력 두 사람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상호작용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
의사소통	자신의 요구를 의사소통하기 위해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상징사용	가상놀이 능력의 발달 자신의 관심사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표 7>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요인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1, 2, 3, 4, 5, 6, 7, 8, 9, 10, 11	11	.83
논리적 연결	29, 30, 31, 32, 33, 34, 35	7	.93
관계참여	12, 13	2	.89
상호작용	14, 15	2	.85
의사소통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92
상징사용	25, 26, 27, 28	4	.93
전체	1~35	35	.93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 7>에 제시했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83, 논리적 연결 .93, 관계참여 .89, 상호작용 .85, 의사소통 .92, 상징사용 .93,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울산 동구 관내 한 어린이집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 용이성, 수행 시간 등을 알아보고 수정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대상이었던 어머니들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10일간 실시하였다. 총 배포된 200부 중 일부는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

게 질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부는 구글 설문지를 발송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포된 질문지는 총 157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133부의 자료가 최종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인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기술통계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8>과 같다.

<표 8>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N=133)

	변인	척도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M	SD
양육 스트 레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60	1	4.83	2.77	0.80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5	10-50	1	4.7	2.47	0.78
	양육 유형	온정적 양육	1-5	20-100	3	5	4.08
	통제적 양육		13-65	2.31	4.31	3.35	0.40
사회 정서 발달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0-55	2	5	4.13	0.46
	논리적 연결		0-35	0	5	4.19	0.94
	관계참여	0-5	0-10	2	5	4.62	0.58
	상호작용		0-10	2.5	5	4.71	0.49
	의사소통		0-45	1.8	5	4.48	0.65
		상징사용		0-20	1.25	5	4.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2.77($SD=0.80$),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평균은 2.47($SD=0.78$)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의 평균은 4.08($SD=0.44$), 통제적 양육의 평균은

3.35($SD=0.40$)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의 부모보다 온정적 양육의 부모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부분에서는 상호작용($M=4.71, SD=0.49$), 관계참여($M=4.62, SD=0.58$), 상징사용($M=4.5, SD=0.77$), 의사소통($M=4.48, SD=0.65$), 논리적 연결($M=4.19, SD=0.94$),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M=4.13, SD=0.46$) 순으로 나타났다.

2)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9>와 같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9>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N=133$)

월령		4~18개월	19~42개월	합계	
성	남	남($n=6$)	남($n=52$)	남($n=58$)	
	여	여($n=8$)	여($n=67$)	여($n=75$)	
	계	계($n=14$)	계($n=119$)	계($n=133$)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남	2.74(0.48)	2.76(0.98)	2.76(0.94)
		여	2.45(0.49)	2.78(0.70)	2.75(0.69)
	$M(SD)$	계	2.57(0.49)	2.78(0.83)	2.75(0.80)
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남	2.50(0.63)	2.48(0.87)	2.48(0.84)
		여	1.95(0.51)	2.53(0.74)	2.46(0.74)
	$M(SD)$	계	2.19(0.61)	2.50(0.79)	2.46(0.78)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남	4.04(0.52)	4.04(0.44)	4.04(0.44)
		여	4.36(0.46)	4.08(0.44)	4.11(0.45)
	$M(SD)$	계	4.23(0.49)	4.06(0.44)	4.08(0.44)
통제적 양육	통제적 양육	남	3.03(0.46)	3.39(0.41)	3.35(0.43)
		여	3.12(0.48)	3.38(0.79)	3.35(0.39)
	$M(SD)$	계	3.08(0.46)	3.38(0.39)	3.35(0.40)

사 회 정 서 발 달	감각 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남	4.06(0.27)	4.10(0.47)	4.10(0.45)
		여	4.27(0.45)	4.15(0.47)	4.16(0.47)
	<i>M(SD)</i>	계	4.18(0.39)	4.13(0.47)	4.13(0.46)
	논리적 연결	남	·	3.99(1.10)	3.99(1.10)
		여	·	4.37(0.72)	4.37(0.72)
	<i>M(SD)</i>	계	·	4.19(0.94)	4.19(0.94)
	관계 참여	남	4.42(0.49)	4.57(0.64)	4.55(0.62)
		여	4.63(0.52)	4.67(0.55)	4.66(0.54)
	<i>M(SD)</i>	계	4.54(0.50)	4.62(0.59)	4.62(0.58)
	상호 작용	남	4.38(0.75)	4.68(0.48)	4.66(0.50)
		여	4.82(0.37)	4.73(0.50)	4.74(0.49)
	<i>M(SD)</i>	계	4.67(0.54)	4.71(0.49)	4.71(0.49)
	의사 소통	남	·	4.35(0.70)	4.35(0.70)
		여	·	4.58(0.59)	4.58(0.59)
	<i>M(SD)</i>	계	·	4.48(0.65)	4.48(0.65)
	상징 사용	남	·	4.41(0.91)	4.41(0.91)
		여	·	4.58(0.63)	4.58(0.63)
	<i>M(SD)</i>	계	·	4.50(0.77)	4.50(0.77)

<표 9>에 제시된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스트레스는 4~18개월 평균이 2.57($SD=0.49$), 19~42개월 평균이 2.78($SD=0.83$)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2.76($SD=0.94$), 여아가 평균 2.75($SD=0.69$)로 나타났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4~18개월 평균이 2.19($SD=0.61$), 19~42개월 평균이 2.50($SD=0.79$)으로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2.48($SD=0.84$), 여아가 평균 2.46($SD=0.7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에서는 4~18개월 평균이 4.23($SD=0.49$), 19~42개월 평균이 4.06($SD=0.43$)으로 월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4.04($SD=0.44$), 여아가 평균 4.11($SD=0.45$)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에서는 4~18개월 평균이 3.08($SD=0.46$), 19~42개월 평균이 3.38($SD=0.39$)로 월령

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3.35($SD=0.43$), 여아가 평균 3.35($SD=0.39$)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는 4~18개월의 평균이 4.18($SD=0.39$), 19~42개월 평균이 4.13($SD=0.47$)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4.10($SD=0.45$), 여아가 평균 4.16($SD=0.47$)으로 나타났다. 관계참여에서는 4~18개월의 평균이 4.54($SD=0.50$), 19~42개월 평균이 4.62($SD=0.59$)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4.55($SD=0.62$), 여아가 평균 4.66($SD=0.54$)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요인에서는 4~18개월의 평균이 4.67($SD=0.54$), 19~42개월 평균이 4.71($SD=0.49$)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남아가 평균 4.66($SD=0.50$), 여아가 평균 4.74($SD=0.49$)로 나타났다. 아래 <표 10>은 <표 9>에서 제시한 자녀의 월령별, 성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평정 차이검증 ($N=133$)

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양육 스트레스	월령	58.05	1	58.05	.62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성 31.63	1	31.63	.34
	월령*성	42.07	1	42.07	.45
	오차	11949.57	128	93.36	
	합계	12066.81	13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월령	92.46	1	92.46	1.53
	성	77.07	1	77.07	1.27
	월령*성	110.08	1	110.08	1.82
	오차	7803.92	129	60.49	
	합계	8040.36	132		
양육 유형	월령	101.74	1	101.74	1.30
	성	157.58	1	157.59	2.01
	월령*성	98.59	1	98.59	1.26
	오차	10081.66	129	78.15	
	합계	10374.82	132		
통제적 양육	월령	205.12	1	205.12	7.73**
	성	3.70	1	3.70	.14
	월령*성	4.68	1	4.68	.17
	오차	3421.19	129	26.52	
	합계	3626.42	132		

	월령	2.64	1	2.64	.10
감각	성	25.43	1	25.43	.97
조절 및	월령*성	9.80	1	9.80	.37
세상에	오차	3361.25	129	26.05	
대한 관심	합계	3393.09	132		
	월령	.00	0	.	.
논리적	성	147.06	1	3.53	3.53
연결	월령*성	.00	0	.	.
	오차	3329.04	80	41.61	
	합계	3476.11	81		
	월령	.44	1	.44	.33
관계	성	1.14	1	1.14	.85
참여	월령*성	.15	1	.15	.11
	오차	173.16	129	1.34	
사회	합계	175.23	132		
정서	월령	.50	1	.50	.51
발달	성	2.31	1	2.31	2.37
	월령*성	1.47	1	1.47	1.52
	오차	123.33	127	.97	
	합계	125.74	130		
	월령	.00	0	.	.
의사	성	129.09	1	129.09	3.88
소통	월령*성	.00	0	.	.
	오차	3891.45	117	33.26	
	합계	4020.55	118		
	월령	.00	0	.	.
상징	성	11.95	1	11.95	1.27
사용	월령*성	.00	0	.	.
	오차	945.03	101	9.35	
	합계	956.99	102		

** $p<.01$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유형에서 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월령에 따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표 11>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N=133)

학력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	합계
가구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00만원(n=25) 400만원 ~500만원 이상(n=19) 계(n=44)	200만원 이하 ~400만원(n=25) 400만원 ~500만원 이상(n=64) 계(n=89)	200만원 이하 ~400만원(n=50) 400만원 ~500만원 이상(n=83) 계(n=133)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M(SD)	200만원 이하 ~ 400만원 2.68(0.92)	2.86(0.68)	2.77(0.81)
		400만원 ~ 500만원 이상 2.83(0.69)	2.72(0.83)	2.74(0.80)
		계 2.75(0.82)	2.76(0.80)	2.75(0.80)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M(SD)	200만원 이하 ~ 400만원 2.53(0.84)	2.48(0.6)	2.50(0.73)
	400만원 ~ 500만원 이상 2.56(0.64)	2.41(0.86)	2.45(0.82)	
	계 2.54(0.75)	2.43(0.79)	2.47(0.78)	
양 육 유 형	온정적 양육 M(SD)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07(0.48)	4.09(0.38)	4.08(0.43)
		400만원 ~ 500만원 이상 3.90(0.39)	4.13(0.46)	4.08(0.45)
		계 4(0.45)	4.12(0.44)	4.08(0.44)
	통제적 양육 M(SD)	200만원 이하 ~ 400만원 3.43(0.30)	3.37(0.35)	3.40(0.33)
	400만원 ~ 500만원 이상 3.28(0.52)	3.33(0.42)	3.32(0.44)	
	계 3.37(0.41)	3.34(0.40)	3.35(0.40)	

사 회 정 서 발 달	감각 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i>M(SD)</i>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21(0.50)	4.11(0.35)	4.16(0.43)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05(0.44)	4.13(0.49)	4.12(0.48)	
		계	4.14(0.48)	4.13(0.46)	4.13(0.46)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16(0.84)	3.81(1.53)	4.02(1.15)	
	논리적 연결 <i>M(SD)</i>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27(0.79)	4.31(0.75)	4.30(0.75)	
		계	4.20(0.81)	4.18(1.01)	4.19(0.94)	
		관계 참여 <i>M(SD)</i>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76(0.50)	4.68(0.45)	4.72(0.48)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42(0.82)	4.59(0.55)	4.55(0.62)
	계		4.61(0.67)	4.61(0.53)	4.61(0.58)	
	상호 작용 <i>M(SD)</i>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82(0.43)	4.88(0.30)	4.85(0.37)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42(0.71)	4.68(0.46)	4.62(0.54)	
		계	4.65(0.60)	4.74(0.43)	4.71(0.49)	
		의사 소통 <i>M(SD)</i>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51(0.61)	4.45(0.62)	4.48(0.61)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31(0.87)	4.53(0.60)	4.48(0.68)	
	계		4.43(0.73)	4.51(0.60)	4.48(0.65)	
	상징 사용 <i>M(SD)</i>		200만원 이하 ~ 400만원	4.54(0.69)	4.30(1.14)	4.43(0.91)
400만원 ~ 500만원 이상		4.44(0.86)	4.58(0.61)	4.54(0.68)		
계		4.49(0.76)	4.51(0.77)	4.5(0.77)		

<표 11>에 제시된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2.75($SD=0.82$),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2.76($SD=0.80$)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2.77($SD=0.81$),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2.74($SD=0.80$)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2.54($SD=0.75$),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2.43($SD=0.79$)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2.50($SD=0.73$),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2.45($SD=0.8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SD=0.45$),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12($SD=0.44$)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08($SD=0.43$),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08($SD=0.45$)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3.37($SD=0.41$),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3.34($SD=0.40$)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3.40($SD=0.33$),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3.32($SD=0.44$)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14($SD=0.48$),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13($SD=0.46$)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16($SD=0.43$),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12($SD=0.48$)로 나타났다. 논리적 연결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20($SD=0.81$),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18($SD=1.01$)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02($SD=1.15$),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30($SD=0.75$)으로 나타났다. 관계참여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61($SD=0.67$),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61($SD=0.53$)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72($SD=0.48$),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55($SD=0.62$)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65($SD=0.60$),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74($SD=0.43$)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85($SD=0.37$),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62($SD=0.54$)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43($SD=0.73$),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51($SD=0.60$)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48($SD=0.61$),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48($SD=0.68$)로 나타났다. 상징사용에서는 고졸이하~2,3년제 대학 졸 집단 평균이 4.49($SD=0.76$), 4년제 대학 졸~대학원 졸 집단 평균이 4.51($SD=0.77$)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400만원 집단이 평균 4.43($SD=0.91$), 400만원~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4.54($SD=0.68$)로 나타났다. 아래 <표 12>는 <표 11>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학력, 가구 월 평균 소득 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2>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평정 차이검증

(N=133)

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양육 스트 레스	학력	4.36	1	4.36	.04
	소득	.02	1	.02	.00
	학력*소득	87.46	1	87.46	.93
	오차	11974.42	128	93.55	
	합계	12066.81	13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학력	26.20	1	26.20	.42
	소득	.63	1	.63	.01
	학력*소득	6.89	1	6.89	.11
	오차	7995.19	129	61.97	
	합계	8040.36	132		
양육 유형	학력	152.17	1	152.17	1.94
	소득	45.06	1	45.06	.57
	학력*소득	122.97	1	122.97	1.57
	오차	10075.97	129	78.10	
	합계	10374.82	132		
통제적 양육	학력	.08	1	.08	.00
	소득	40.45	1	40.45	1.45
	학력*소득	16.57	1	16.57	.59
	오차	3576.91	129	27.72	
	합계	3626.42	132		

		학력	.20	1	.20	.00
	감각	소득	15.10	1	15.10	.58
	조절 및	학력*소득	26.58	1	26.58	1.02
	세상에	오차	3358.61	129	26.03	
	대한 관심	합계	3393.09	132		
		학력	18.62	1	18.62	.43
	논리적	소득	75.76	1	75.76	1.76
	연결	학력*소득	29.48	1	29.48	.68
		오차	3353.18	78	42.99	
		합계	3476.11	81		
		학력	.19	1	.19	.14
	관계	소득	5.05	1	5.05	3.84
	참여	학력*소득	1.61	1	1.61	1.23
		오차	169.63	129	1.31	
		합계	175.23	132		
		학력	2.66	1	2.66	2.93
	상호	소득	9.31	1	9.31	10.25**
	작용	학력*소득	1.13	1	1.13	1.25
		오차	115.38	127	.90	
		합계	125.74	130		
		학력	13.24	1	13.24	.38
	의사	소득	6.98	1	6.98	.20
	소통	학력*소득	37.85	1	37.85	1.09
		오차	3965.11	115	34.47	
		합계	4020.55	118		
		학력	.95	1	.95	.10
	상징	소득	2.76	1	2.76	.29
	사용	학력*소득	11.72	1	11.72	1.23
		오차	940.54	99	9.5	
		합계	956.99	102		

** $p < .01$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은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

전체 변인들 간 상관을 분석해본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전체 변인들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1									
2	-.15	1								
3	-.49**	.11	1							
4	-.67**	.08*	.79**	1						
5	.40**	-.00	-.33**	-.35**	1					
6	.15	.04	-.18	.06	.19	1				
7	.34**	-.05	-.23**	-.35**	.46**	.18	1			
8	.23**	-.03	-.21*	-.23**	.42**	.09	.73**	1		
9	.33**	-.11	-.33**	-.32**	.50**	.42**	.64**	.69**	1	
10	.24*	-.07	-.27**	-.24*	.40**	.58**	.47**	.48**	.86**	1

1. 온정적 양육 2. 통제적 양육 3.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4.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5.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6. 논리적 연결 7. 관계참여 8. 상호작용 9. 의사소통 10. 상징사용

* $p<.05$, ** $p<.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두 요인 즉,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49$, $p<.01$),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67$, $p<.01$)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온정적일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통제적 양육유형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08, p<.05$)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통제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r=-.33, p<.01$), 관계참여($r=-.23, p<.01$), 상호작용($r=-.21, p<.05$), 의사소통($r=-.33, p<.01$), 상징사용($r=-.27, p<.01$)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r=-.35, p<.01$), 관계참여($r=-.35, p<.01$), 상호작용($r=-.23, p<.01$), 의사소통($r=-.32, p<.01$), 상징사용($r=-.24, p<.05$)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r=.40, p<.01$), 관계참여($r=.34, p<.01$), 상호작용($r=.23, p<.01$), 의사소통($r=.33, p<.01$), 상징사용($r=.24, p<.05$)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온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에 대한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통제적 양육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의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의 영향

종속변수	예측변수	<i>B</i>	β	<i>t</i>	<i>R</i> ²	<i>F</i>
사회정서발달 전체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65	.39	3.74	.14	14.01**
사회정서발달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23	.40	5.10	.16	26.07**

사회정서발달 (관계참여)	양육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05	-.34	-4.24	.12	17.99**
사회정서발달 (상호작용)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02	.23	2.69	.23	7.27**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22	.34	3.89	.11	15.13**
사회정서발달 (의사소통)	양육유형 (온정적 양육)	.15	.23	2.30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	-.21	-2.16	.15	10.14**
사회정서발달 (상징사용)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9	-.27	-2.8	.07	8.27**

** $p < .01$

첫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전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정적 양육($F=14.01, P<.01$)이 사회정서발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값이 .65로 (+)값을 나타내어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온정적 양육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정적 양육($F=26.07, P<.01$)이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값이 .23으로 (+)값을 나타내어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온정적 양육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관계참여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F=17.99, P<.01$)가 사회정서발달 중 관계참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값이 -.05로 (-)값을 나타내어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관계참여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정적 양육($F=7.27, P<.01$)이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값이 .02로 (+)값을 나타내어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온정적 양육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정적 양육($F=15.13, P<.01$)이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이 진입하게 되면 15%의 설명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설명력이 4%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온정적 양육의 B값은 .15로 (+)값을 나타내어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온정적 양육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B값은 -.12로 (-)값을 나타내어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F=8.27, P<.01$)가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값이 -.09로 (-)값을 나타내어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영아기의 사회정서발달은 유아기의 사회정서 행동이나 성인기의 사회적 행동에 근간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영아기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체계로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양육유형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유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아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여 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문항에 체크하도록 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은 각각 PSI-SF와 PSQ 척도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은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월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통제적 양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월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즉, 자녀의 월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박성혜(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생활 속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가 지도함에 따라 통제하는 양육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자녀 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사회정서발달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고성혜, 1994; 김기현, 2000; 김은영, 1997; 김은정, 2001; 박인숙, 1997)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이혜림, 2015; 이민영, 2010)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정서발달 측정에 대한 하위요인이 선행연구들과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더불어 현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측정 도구로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K-BSID-III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즉,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작용 할 기회가 더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가구 소득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이혜림(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성혜(1994), 이영숙(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각 연구마다 내리는 변인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머니가 검사를 수행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에서 서로 상충될 수 있다(조성연, 1990).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와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김지영(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칭찬과 격려, 적극적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유형이 줄고, 거부,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유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여러 연구들(김말경, 박혜원, 2008; 박영진,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과 일치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은 낮게 나타나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성과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신명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능력, 두 사람 간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가상놀이 능력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고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관계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징사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권옥자(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능력, 두 사람 간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가상놀이 능력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 상관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유형에 선행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모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이를 통해 온정적 양육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전체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총 14%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모의 자녀들은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사회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Hurlock(1978)의 연구결과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는 사회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Kagan(196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유형일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으로 총 1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감각조절 및 세상에 대한 관심 즉,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관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1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인기도, 지도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김현미(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어린이집 적응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래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어린이집 등원 시 불안해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고 밝힌 이정희(2000)의 연구결과와도 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

레스를 높게 느낄수록 자녀의 두 사람 간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정적 양육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23%의 설명력으로 다른 요인에서 나타난 설명력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유형일수록 자녀는 유치원에서 친사회적이고 또래 간 인기가 높게 나타난다는 원영미(199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정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과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나타났으며, 총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온정적 양육은 정적 상관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유형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는 김지신(199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는 낮은 유능감, 사회적 능력, 적응력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이자현, 위영희, 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의사소통 즉,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머니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놀이보다 또래들과의 놀이를 좋아한다는 문혜련(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중 상징사용 즉, 가상놀이 능력의 발달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유형 중 온정적 양육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유형 두 요인이 동시에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점과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0~42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33명에 한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따라서, 0~42개월 자녀를 둔 전체 어머니에게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지역과 수가 확대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구조로 인해 주 양육자의 범위가 확대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로 한정 짓기보다 주 양육자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더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어머니가 질문지를 통하여 직접 평정하도록 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로 평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 평정이 가능한 집단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유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영아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 정서지능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수의 연구들과 달리 상호기능적인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함께 살펴본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

셋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척도로 K-BSID-III와 함께 실시되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어린 영아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으며, 연령별 기준 단계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회정서발달 수준을 나타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수진(2009). 가족배경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8).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권성례(2017). 영아의 기질, 어머니와의 심리적·행동적 조화적합성이 사회정서발달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선(2012).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 린(2006).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통제가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말경, 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간의 관계: 양육 스트레스의 중재효과 탐색.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명희(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2010).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영(2018).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예술활동이 만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희(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정서지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가족의 집단성격

- 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심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정(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2009). 가족 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 경험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대한스트레스학회지**, 23(2), 91-100.
- 김지혜, 방희정, 이순행, 김현미, 남민(2014).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 척도의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21(2), 201-225.
- 김춘희(2002). 자녀양육 시 부모의 스트레스. 복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2007).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사회-정서척도 한국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10개월~42개월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인(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노경아(2016).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인순(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효정(2015). 부모의 양육신념·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라(2017).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 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혜(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어진(2012). 어머니의 놀이 신념과 유아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진(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양육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숙(1997). 어머니의 취업·사회계층과 자녀의 성·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성(2012).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5), 253-272.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인(2015).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모-아 수면의 질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모-아 애착과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수연(2010). 자녀 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미(2017). 부모지원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숙(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

- 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1), 1-15.
-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127-251.
- 우희정, 최정미(2002). 초·중학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65-76.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 미(2021). 남편의 양육참여가 만2세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8.
- 유현숙, 고선옥(2009).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7(2), 17-34.
- 유희정(2002).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한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성환(2019). 아동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선영(2016).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원(201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79). 취학 전 아동 사회성숙도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2010).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90-207
- 이승은(2012). 어머니의 애착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2000).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스트레스가 학업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2001). 유아부모의 학력에 따른 책임의식, 양육태도,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대구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2007). 적극적인 부모역할 훈련(APT)프로그램과 부모의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현, 위영희(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35(5), 139-161.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2015). 만2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2002).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선(2004). 유아의 기질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순(2008).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성연(1990). 아동이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희(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석란(2007).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본 유아갈등상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147-165.
- 최유경(1998). 부모 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16). 아버지의 자녀양육특성과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지(202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동과학연구소(1996).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서울: 샘터유아교육신서.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Anderson, S., & Messick, S. (1974). Social competenc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282-293.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74-175.
- Bate, T.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8).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ratings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9*(50), 167-186.
- Bayley, N. (2006). *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3rd ed.) Technical Manual*. San Antonio, TX: Pers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 Cummings J. S., Pellegrini, D. S.,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Cutrona, C. E., and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 323-340.
- Greenspan, S. I. (1979). Intelligence and adaptation: An integration of psychoanalytic and Piagetian developmental psychology. *Psychological Issues, 12*(3-4), 1-408.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03-196). New York: Wiley
- Hurlock, E. B. (1978).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on family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pp. 495-498). New York: McGraw-Hill.
- Kagan, J. (1965). Reflection-impulsivity and reading ability in primary grade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3), 609-628.
- Klennert, M. D., Campos, J. J., Sorce, J. F., Emde, R. N., & Svejda, M. J. (1983). Emotions as behavior regulators: Social referencing in infants. *Emotions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2, 57-68.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Young Children*, 36(5), 7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aul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Formerly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264). New York: McGraw-Hill.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chaefer, E. (1959).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yle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Kim, YeongA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child's development and adaptation through verification of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for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133 mothers with children aged 0 to 42 month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28.0. Firstly,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mother,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inall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on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s for are as follows.

1.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the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the mother?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3. What is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on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uch research qu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the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the mo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rolling parenting among the mother's parenting typ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 The average of controlling parenting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higher age than the group with lower ag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the low-income group used more emotional to convey their intentions than the high-income group.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irst of all,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daily stress caused by mother's raising child, burden and distress about the role of parents and compassionate parenting typ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burden and distress about the role of parents and controlling parenting typ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Next,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aily stress caused by mother's raising child an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sensory control and interest in the world, relationship participation, interaction, and symbolic use factors.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type and the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passionate parenting type and the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sensory control and interest in the world, relationship participation, interaction, communication, and symbol us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on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14%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mother's compassionate parenting.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16%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he mother's compassionate parenting, and 12%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he mother's burden and distress about the role of parents.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23%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he mother's compassionate parenting, and a total of 15%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he mother's compassionate parenting and daily stress caused by mother's raising child. Lastly, it was found that 7%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he mother's daily stress caused by raising child in the use of symbols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33 mothers with children aged 0 to 42 months living in Ulsan Metropolitan Cit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generaliz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nsure objectivity because the mother evaluated the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a questionnaire.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both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type at the same time for th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hild's social and emotional.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level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could be measured more accurately according to the age-specific standard stage using K-BSID-III social-emotional scale.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ollect chil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groups capable of more objective evaluation, such as daycare center teachers.

Key words: Parenting stress, Parenting type,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K-BSID-III

<부록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I.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응답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2.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3.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4.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5.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7.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8.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9.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10.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2. 아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 후에 밀려 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13.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4.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5.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6.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17.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18.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19.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20.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21.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부록 2> 어머니의 양육유형 질문지

Ⅱ. 어머니의 양육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응답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가진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3.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놀아 준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6.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7.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8. 사물을 탐구하도록 격려한다.					
9. 아이에게 느긋하고 편안하게 대한다.					
10.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 한다.					
11.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한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아이에게 실수했을 때 사과한다.					
13. 아이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다.					
14.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한다.					
15. 아이에게 만족한다.					
16. 아이가 짜증내면 물어본다.					
17. 아이를 키우는게 부담스럽다.					
18. 바쁠 때는 말상대를 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19. 아이들이 싸우면 이유를 묻기보다 벌을 준다.					
20.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TV를 알고 있다.					
21.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단호히 제지한다.					
22.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는다.					
23.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아이에게 엄하게 대한다.					
25.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6.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한다.					
27. 버릇을 들이기 위해 벌을 준다.					
28. 가정의 규칙이 정해지면 지키게 한다.					
29. 아이에게 항상 무엇인가 하라고 말한다.					
30.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르게 한다.					
31. 숙제 등 할 일을 확인한다.					
32. 아이의 응석을 받아준다.					
33.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부록 3>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질문지

Ⅲ 다음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관찰된 빈도에 따라 해당 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 ____① 남자 ____② 여자
 2. 자녀의 나이: _____개월 _____일

항목	알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반 정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주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기분 좋은 관심을 보인다.						
2. 매우 크거나 과장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이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다.						
3. 알록달록한 사물이나 밝은 불빛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상을 볼 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기분 좋은 관심을 보인다.						
4. 알록달록한 사물이나 매우 밝은 불빛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시각적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다.						
5. 여러 가지 촉감의 물건을 만지거나, 그것이 몸에 닿았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인다.						
6. 힘주어 잡거나 누르지 않아도 엄마(양육자)가 만지는 것에 대한 반응을 쉽게 얻을 수 있다.						
7. 안아서 흔들어주거나 돌려주는 것, 혹은 빠르게 안아 올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8. 엄마(양육자)가 아이에게 다가가거나, 아이를 천천히 움직여주면 아이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						
9. 엄마가 달래주면 진정된다.						
10. 엄마의 얼굴이나 장난감 등 관심 있는 것을 쳐다본다.						

항목	알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반 정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흥미로운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쳐다본다.						
0~3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2.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 보인다.						
13. 말하거나 놀아주는 사람에게 소리를 내거나 표정을 지어 반응한다.						
4~5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4.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내밀거나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거나, 소리를 낸다.						
15. 좋아하는 사람과 두 차례 이상 미소나 표정, 소리, 행동을 주고받는다.						
6~9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6. 엄마의 몸짓이나 행동을 이해했다는 표시로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17. 상호작용 행동을 연이어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거나 장난을 친다.						
10~14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8. 놀이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 엄마 내는 여러 소리나 말, 행동을 따라하거나 흉내 낸다.						
19.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저기 쳐다보거나, 엄마(양육자)가 찾아보게 한다.						
20. 몇 가지 연속적인 행동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표현한다.						

항목	알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반 정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1.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놀아줄 때, 우리 아이는 단어 혹은 유사한 말을 하려고 한다.						
15~18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22. 우리 아이는 친숙한 가상놀이를 흉내 내거나, 따라한다. (예: 인형에게 밥을 먹이거나 안아줌)						
23. 우리 아이는 한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말한다. (예: "주스", "열어줘", "뽀뽀")						
24. 간단한 부탁을 말하면 이해하고 들어준다.						
19~24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25. 우리 아이는 엄마(양육자)나 다른 사람들과 가상놀이를 한다. (예: 소꿉놀이)						
26. 단어나 그림을 사용해 관심 있는 것을 양육자에게 이야기한다. (예: "트럭(이다)!")						
27. 한 명 이상의 또래와 단어를 사용해 말한다.						
28. 단어나 그림을 사용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표현한다. (예: "저거 줘.", "싫어")						
25~30개월은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29. 한 명 이상의 또래와 가상놀이를 한다.						
30. 이야기로 된 가상놀이를 엄마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한다. 이때 이야기는 앞 뒤 연결이 서로 통하는 줄거리로 되어야 한다.						
31.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물어볼 때 문장이나 구를 사용하여 질문한다.						

항목	알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반 정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32.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3. 하고있는 일이나 원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한다.						
34. 다양한 인물 및 장면이 등장하고 이야기의 앞뒤 연결이 서로 통하는 가상놀이를 친구(또래) 혹은 어른들과 한다.						
35. 우리 아이는 성인 혹은 또래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의미가 통하는 대화를 네 번 이상 주고받는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